

“노력하고 대우한 만큼 보답이 있는 낙농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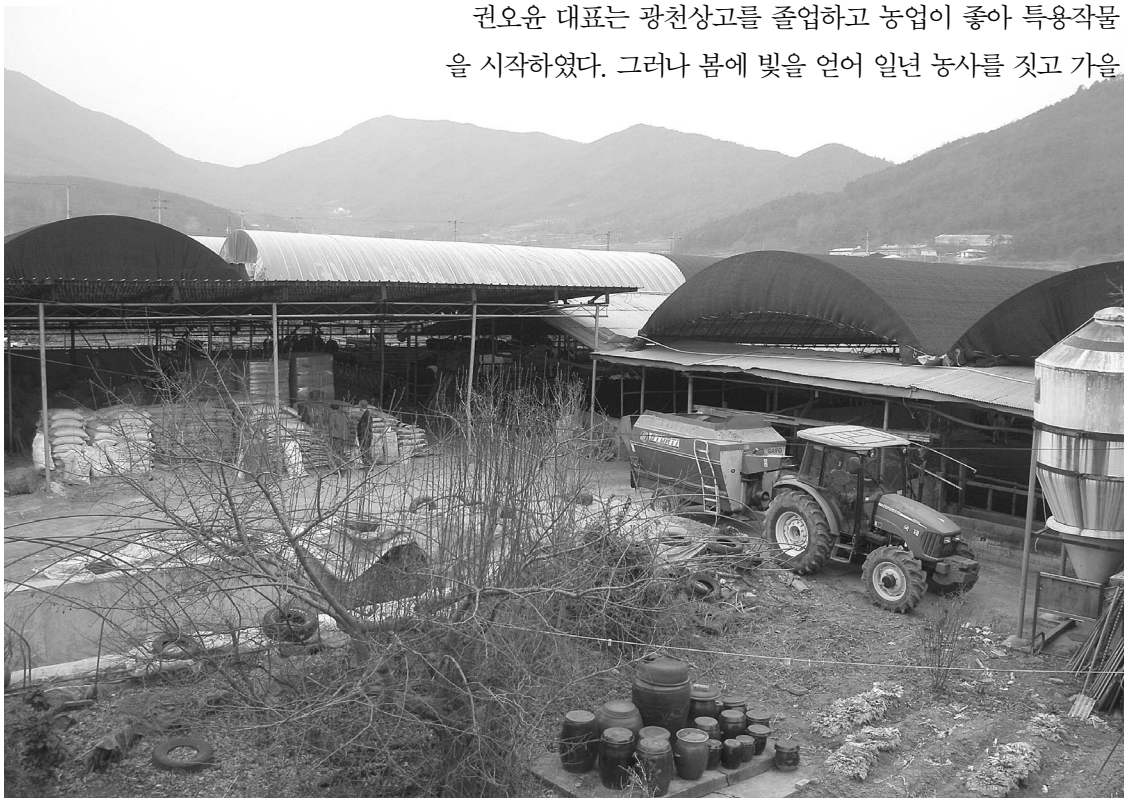
오운목장 권오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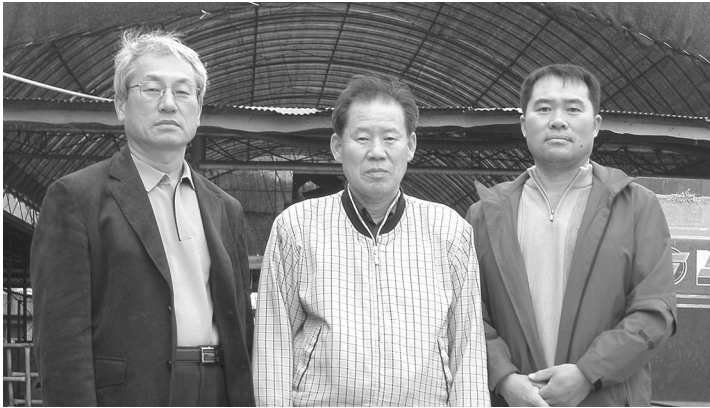


“청춘이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와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낙농가족이 있다.

40대 중반에 목장을 시작하여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청춘을 가슴에 품고 목장을 운영하는 보령검정회(회장 김원동) 오운목장 권오윤 대표를 찾아보았다.

권오윤 대표는 광천상고를 졸업하고 농업이 좋아 특용작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봄에 빗을 얻어 일년 농사를 짓고 가을





← 좌로부터 보령검정회
김원동 회장, 권오윤
대표, 김준수 총무

이 되어 빛을 쬐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1984년 동생이 2마리의 젓소를 사주어 목장을 시작하였다. 그 후 목장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즉 노력하고 대우한 만큼 변함 없이 보답을 해주고, 소 값은 변화가 있어도 우유 가격만큼은 정부가 지지해주어 열심히 생산만 하면 되는 낙농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홍성군 낙우회장(빙그레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표는 낙농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젓소개량이 필수적이라는 생각 아래 유우군검정을 받기 위해 홍성낙협에 방문을 하였다. 그렇지만 빙그레에 납유한다는 사실 때문에 거절을 당하였다. 그런 일이 있던 후에 2003년 보령검정회에서 검정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검정사업에 참여하면서 3급~등위를 왔다갔다하던 체세포가 12개월 중 1~2회 2등급을 받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유량도 30kg/일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한다.

보령검정회 김원동 회장은 검정회의 가장 연장자이면서 최고의 청춘을 자랑하는 검정회의 기둥이다. 더불어 입회검정 및 검정회 모임 등의 시간 관념이 가장 정확한 회원이며 검정의 중요성 강조하고 널리 홍보하여 벌써 3명의 회원을 영입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검정회 운영 및 행사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 좋은 예로 검정회에서 운영하는 낙농헬퍼 사업이 어려움을 알고 착유두수 20두 미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여 운영비를 부담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쿼터를 좀 더 늘려 1,200kg/일 정도의 안정적인 납유를 하는 목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착유시간 때문에 여가를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낙농인으로 살고 싶다”고 강조한 권대표는 지금도 가족 및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업을 자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거짓말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 취재 윤현상 부장-